2025. 2. 17



The Bond Weekly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기

▲ 채권전략
Analyst **윤여삼**
02. 6454-4894
yeosam.yoon@meritz.co.kr

미국 물가반등 긴장감을 넘어 다시 안정 시도

미국채10년 4.5% 이상은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하는 우리 입장에서 지난 주 물가지표 발표는 우려할 정도의 내용. CPI 발표 이후 연내 연방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가운데 일부 미국 BoA와 블랙록같은 IB들과 대형 운용사들은 기존 인하가 없다는 전망을 견고히 하는 결과라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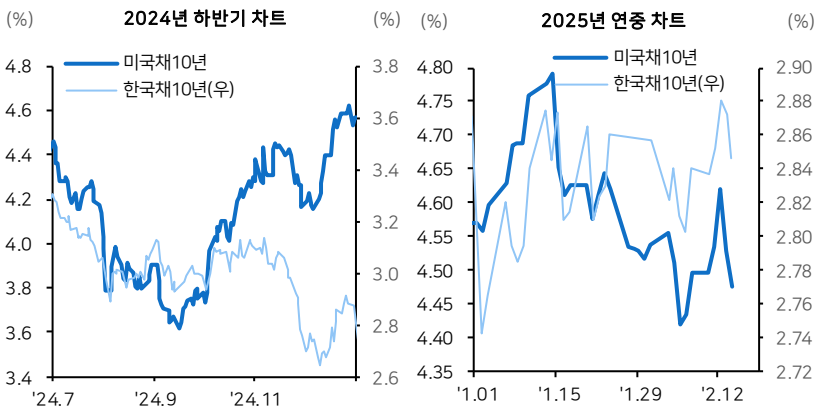
그럼에도 물가도 1월 효과가 있다는 계절성과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4월 1일까지 연장 소식으로 안정. 여기에 연말 소비시즌 과열 이후 계절성으로 1월 소매판매까지 부진한 결과 발표. 미국채10년 금리는 전주대비 소폭 하락한 4.48%로 마감, 우리는 여전히 하반기 미국의 통화완화 기대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유지

국내금리 아직은 통화정책 기대 우위 구간

미국채10년 금리가 연초보다 소폭 반락한 것과 달리 한국채10년은 연초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 미국 CPI 충격 당일 국고10년 금리는 2.9%를 넘었으나 이후 대기매수세 유입으로 2.8% 중반에서 안정. 이후 미국금리 되돌림 과정에서 연동되어 안정되었고, 지난 주말 미국금리 안정폭까지 감안할 때 추가하락 기대 유효

그럼에도 우리는 국내 채권이 고평가 영역이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하며, 10년 2.7%대 진입과 3년 2.5%대 진입은 차익실현 영역으로 판단. 국고10년이 3%대로 추세적 상승을 예상할 정도의 숏관점은 아니나 2월 금통위 금리인하 실시 이후 의심의 2분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무리할 이유가 없다는 차원의 의견

작년 하반기 미국금등에도 급락한 한국금리, 2025년은 소폭이나마 반대로 움직여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물가반등 긴장감을 넘어 다시 안정 시도

미국채 저평가 영역이지만 막상 투자하기엔 쉽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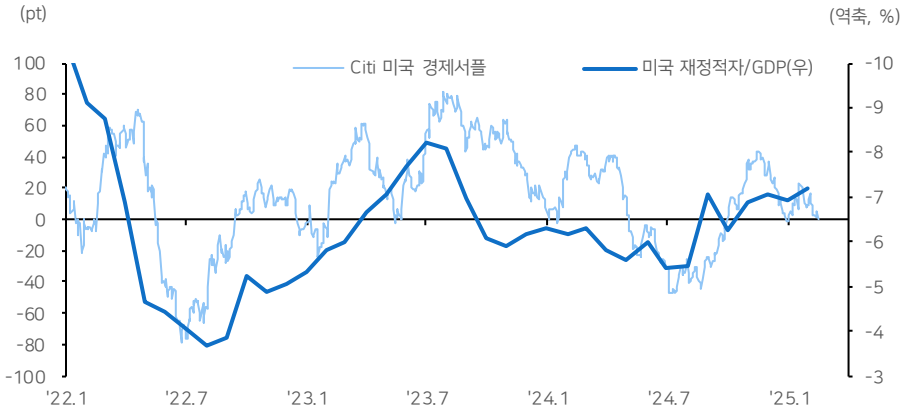
'미국채10년 4.5% 이상은 저평가 영역'이라는 우리의 주장에 동의하는 투자자가 많다고 해도 미국채10년 금리는 여전히 4% 중반에 묶여 있다. 지난 주 CPI 발표 이후 미국채10년 4.6%대와 미국채30년 4.7%대에서도 미국채 입찰 응찰률은 최근 평균보다 낮았다. 고금리에도 채권 투자는 주저할 유인이 많다.

늘어난 재정적자로 연말 소비시즌까지 미국 경제는 양호한 흐름

우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미국 재정적자는 올해 1월 숫자가 GDP의 -7.2%로 지난해 4분기보다 늘었다<그림 1>. 바이든 행정부는 퇴임 끝까지 돈을 다 쓰고 간 것으로 풀이된다. 덕분에 연말 소비시즌까지 미국 경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막대한 적자와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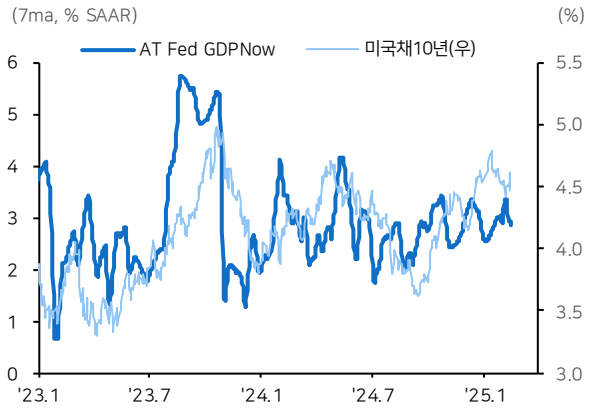
2023년 이후 GDPNow 기준 미국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3% 내외에서 움직일 정도로 양호한 편이었다<그림 2>. 올해 1분기 2%대 추정이 오히려 낮게 느껴질 정도이다. 아직도 글로벌 M2 잔액을 보면 위험선호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 여건도 충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1 바이든 마지막까지 재정적자 늘려놓고 갔음에도 2월 미국 경기모멘텀 둔화 중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 1분기 성장률 탄력 둔화 가능성 조금씩 비춰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아직까지는 풍부한 유동성에 위험선호는 유효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1월 CPI 결과,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 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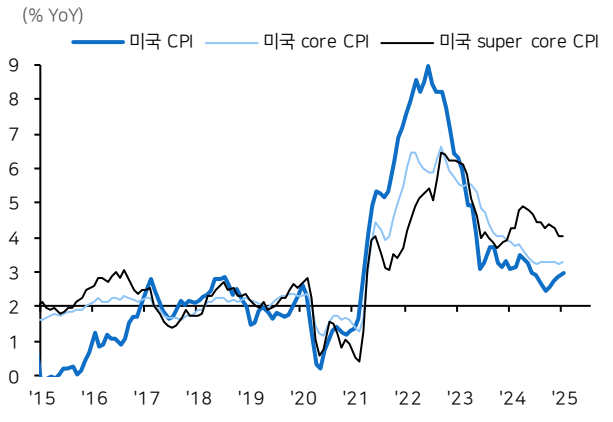
이를 기반으로 미국은 여전히 경제가 강하고, 물가는 오히려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주 1월 CPI 결과 확인 이후 경기여건보다도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장악했다. 전월대비 0.3% 정도 오를 것이라는 헤드라인 CPI는 무려 0.5%나 올랐다. 근원물가에서 주거비까지 제거한 슈퍼코어는 전월대비 0.8%라는 숫자를 기록하며 물가 우려를 자극했다.

전년대비 미국 CPI는 헤드라이인 3.0%로 올랐고, 근원물가와 슈퍼코어는 하락이 정체되었다<그림 4>. 3개월 연율화 기준 재화물가는 2023년 이후 처음으로 4.7%까지 올랐고, 안정되는 듯 보였던 서비스 물가도 다시 4.3%까지 반등했다<그림 2>. 2022년의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의 공포까지 거론되었다.

다만 미국의 주거비 안정 경로는 유효하다는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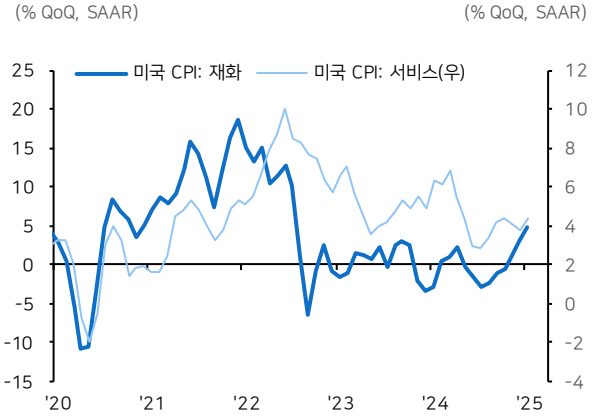
그렇지만 CPI의 40%를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대비 여전히 0.3%대에서 안정을 지켰다<그림 6>. 최근 개선되는 부동산 경기가 주택공급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까지 더해져 미국의 주거비 안정 경로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그림 7>. 매파인 월러가 이전에 이야기한 물가안정 경로의 근간이 흔들린 정도는 아니다.

그림4 1월 CPI 예상치 큰 폭으로 상회, 전방위적으로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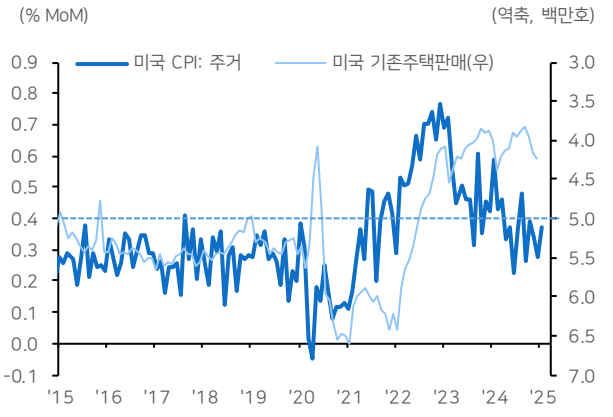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안정적이던 재화물가 2년만에 급등, 서비스도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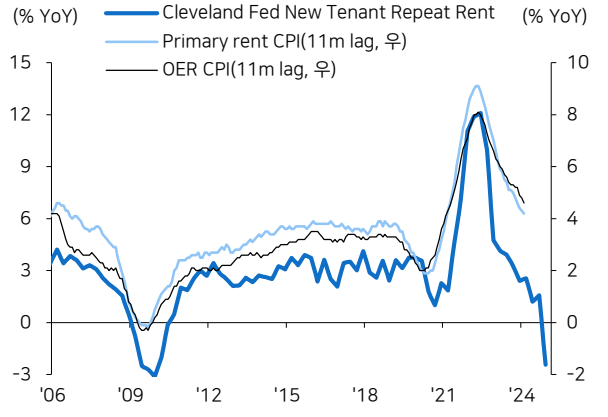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주거비는 선방, 몸통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는 유효



자료: US BLS, US NA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주거비 선행지표 안정 경로는 여전히 유효



자료: US BLS, CV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피크아웃 확인했던 자동차 보험료의 급증으로 서비스물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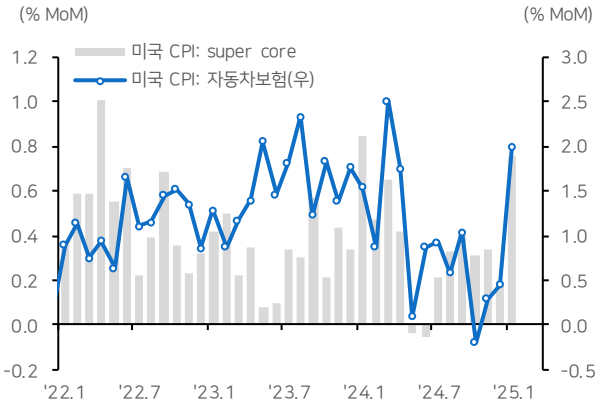
서비스물가 상승을 가장 주도한 부분은 자동차 보험료이다.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기타 서비스물가 상승을 주도한 핵심이 자동차 보험료다. 지난해 2분기부터 안정되는 듯 보였던 자동차 보험료가 월간 2% 넘게 오르자 다른 서비스물가까지 자극했다. 작년 슈퍼코어 물가상승에 기여도가 높았던 자동차 보험료가 손해율 정점까지 확인한 이후 안정될 것으로 보았는데 1월에 급증한 것이다<그림 8>.

그럼에도 자동차가격과 수리비 같은 보험료의 선행지표들 안정경로를 감안할 때 이번 보험료 급등은 일시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판단한다<그림 9>. 미국 서부 대형산불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 지급이 큰 폭으로 늘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PCE가격지수와 관련 있는 항공료와 의료비는 비교적 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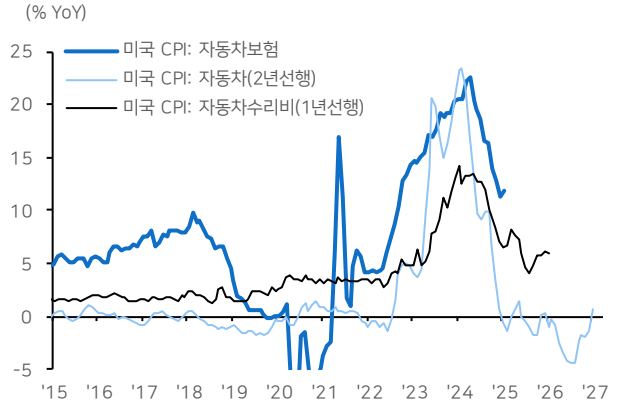
이외에 항공료와 의료비와 같은 연준의 물가인 PCE 영향도가 높은 물가는 비교적 선방했다<그림 10, 11>. CPI 발표 전반적 충격이 컸던 것에 비해 PPI도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했지만, 항공료와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1일만에 금융시장은 미국 물가상승 우려를 상당폭 덜어냈다.

그림8 작년과 유사한 1월 슈퍼코어 급등, 차 보험료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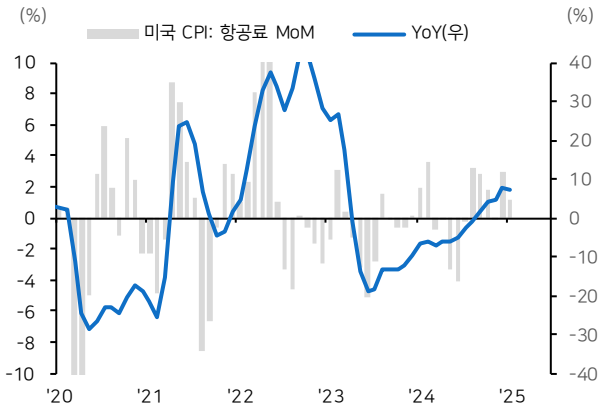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자동차 가격하락세 진정, 그래도 보험료 안정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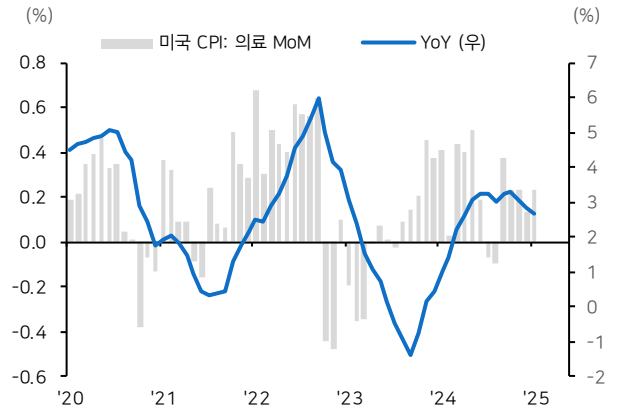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연말 올랐던 항공료 상승세는 다소 안정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정책적 의료비 역시나 무난한 수준 서비스 안정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1월 재화물가 상승에 에너지 가격 등 일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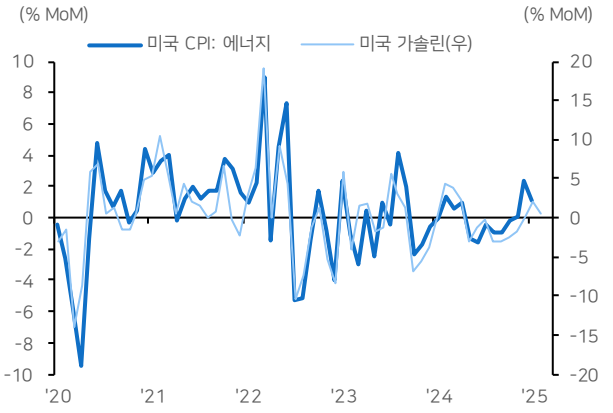
서비스 물가와 유사하게 1월 재화물가 역시 일시적 요인이 많다는 판단이다. 일단 혹한으로 에너지 가격이 12월과 1월 상승세가 강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최근 가솔린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있어 2월에는 에너지 물가상승 압력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그림 12>.

중고차 상승세 전환 및 달걀 가격 안정 여부 주목할 필요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 것에 일부 중고차 가격상승이 최근 강화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그림 13>.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추운 겨울, 산불로 인한 차량소실로 중고차 수요까지 늘어난 결과가 더해졌다는 평가다. 신차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가 강하지 않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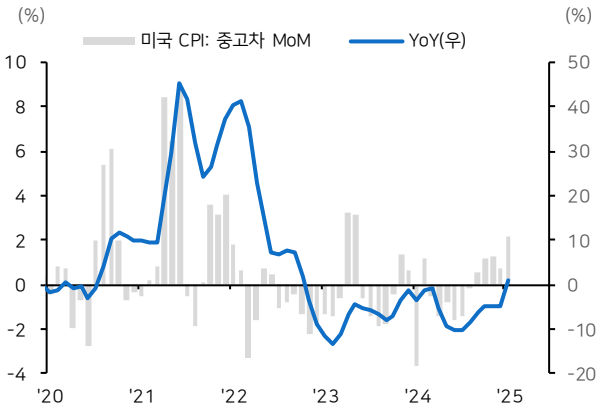
여기에 마지막 불청객이 조류독감으로 인한 달걀 가격급등이다<그림 14>. 미국 주요 마트에서 달걀이 품절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이는 미국 식탁 물가를 전반적으로 자극하고 있다<그림 15>. 단순 식품이 아닌 베이커리와 같은 식재료로 활용되는 달걀 가격안정 여부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12 흑한으로 에너지 가격상승, 2월 가솔린 가격안정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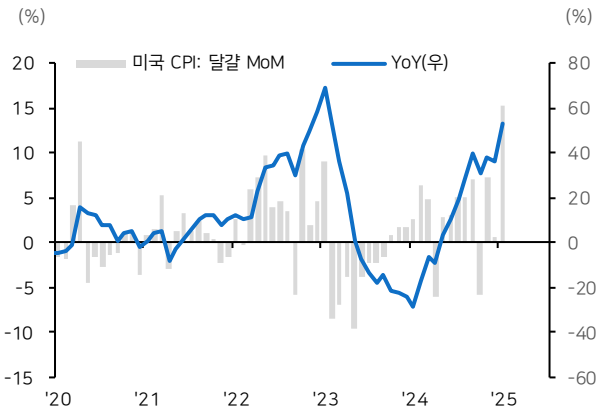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중고차 상승세 전환, 향후 재화물가 지켜볼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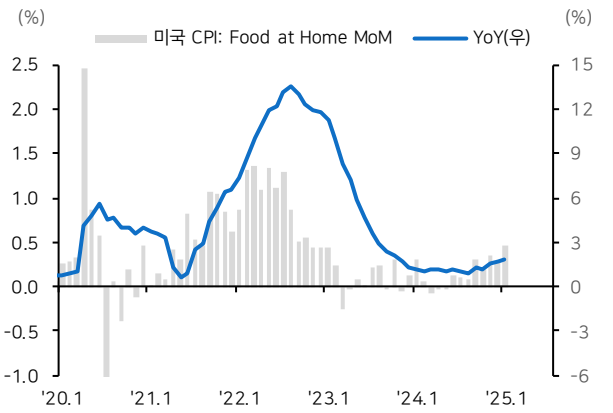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조류독감으로 달걀 스파이크, 자연재해 같은 상황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달걀 등 신선식품 영향 미국 식대 부담 미칠 것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구조적 요인 아닌 이상 미국 물가 일부 안정화될 가능성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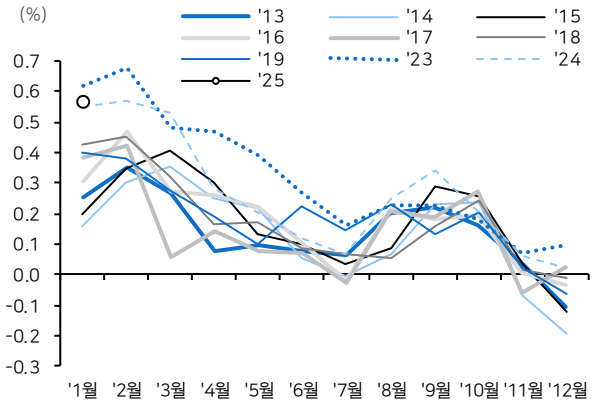
분해해보면 1월 미국 CPI 서프라이즈는 자연재해와 같은 일시적 요인이 다수 확인된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장기화 요인이 아닌 겨울이라는 계절과 조류독감, 산불 등의 이슈가 해소되면 일부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실제 미국 물가지표는 펜데믹 3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평균 1월이 물가가 높게 출발하는 계절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이는 연말 소비시즌의 후유증과 더불어 정책지원 등의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그림 16>. 그리고 노동부가 1년 정도 계절조정치 재조정을 통해 조정된 물가 낮아진 점도 1월 지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그림 17>.

추세 물가 반전 리스크 존재하나 서비스업 탄력 둔화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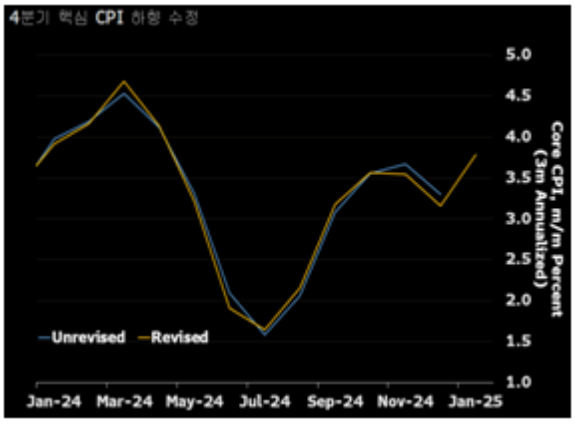
물론 지난해 4분기부터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았던 적이 늘고 있어 추세 물가가 반전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그림 18>. 게다가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면 PPI를 중심으로 미국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면에는 제조업 업황 개선과 달리 서비스업은 탄력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물가 가중치도 서비스업이 높다는 점에서 이 부분 또한 주요하게 보아야 한다.

그림16 비게절조정(NSA) 1월 물가 전반적 높은 수준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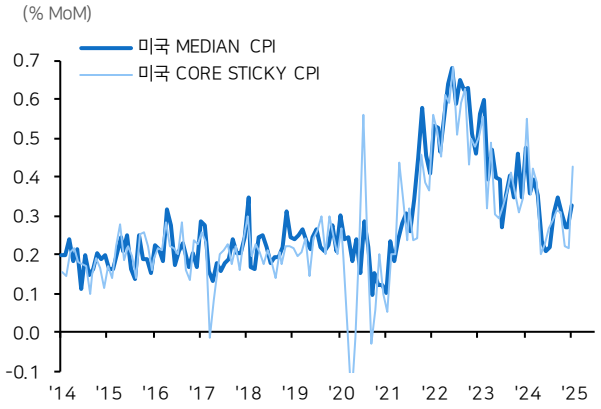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작년보다 물가경로 하향조정, 1월 전월비 상승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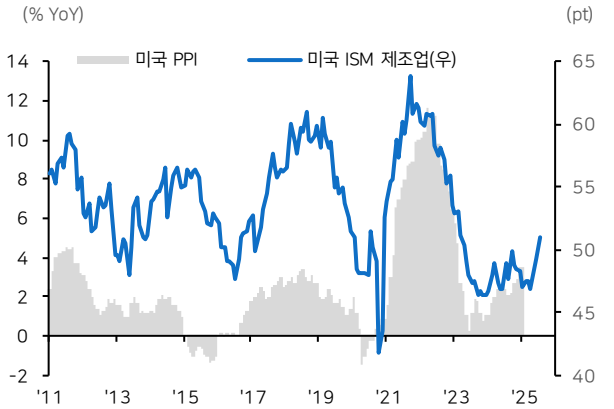
자료: US BLS, Bloomberg Economics

그림18 추세물가 안정구간에서 반등, 추가 상승 여부 점검



자료: CV Fed, AT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기업활동 강화, PPI 중심 물가 다시 오를 수 있어



자료: US BLS, IS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의 러우전쟁 해결 의지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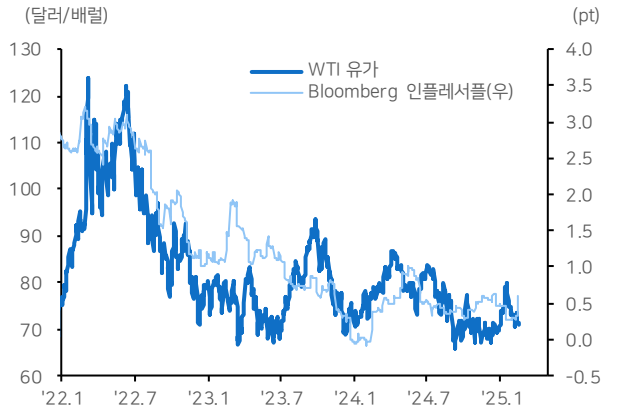
그리고 화석연료 주의자인 트럼프는 중동에 이어 러시아vs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매듭짓겠다고 나서고 있다. 러우전쟁이 종료되면 관련해서 유가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은 트럼프 1.0때와 유사하게 안정될 수 있다. 취임과 동시에 러시아 제재를 언급할 당시 WTI 80달러 선을 육박했으나, 현재는 다시 70달러 초반이며, 1월 물가지표 급등을 확인한 이후에도 물가 모멘텀은 낮은 편이다<그림 20>.

중국 경기부양으로 구리 등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나,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이 안정화되는 부분은 미국 이외 글로벌 수요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그림 21>. 미국 CPI 전망은 올라도 PCE 물가가 안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겠다<그림 22>.

최근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급등은 관세부과 리스크가 투영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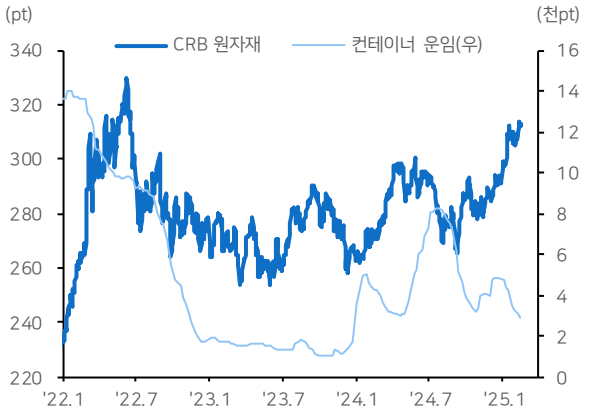
1월 CPI와 함께 미시간대 기대인플레 1년 전망치가 4%대로 급등한 결과는 트럼프 관세부과에 따른 리스크까지 염두에 둔 결과로 풀이된다<그림 23>. 최근 현물 물가지표가 오르면서 BEI도 같이 상승하는 등 기대인플레 부담이 높다고 하나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 관련 신중한 입장을 제시했다.

그림20 유가안정 및 물가 모멘텀 반등 우려할 수준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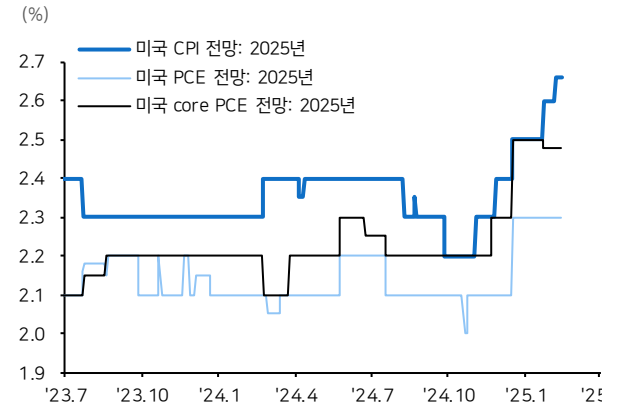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원자재 가격상승에도 컨테이너 운임 안정이 더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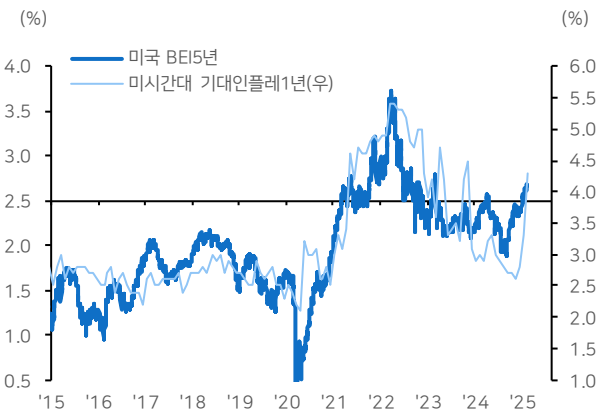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미국 CPI 전망 상향에도 PCE 안정이 더 중요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미국 기대인플레 상승, 관세 이슈 영향 있었을 것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한 미국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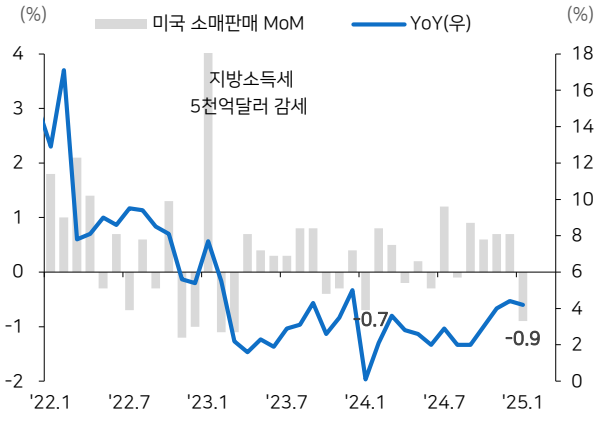
물가지표의 표면 숫자 충격과 해석 이후 안정으로 미국금리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14일(금) 1월 미국 소매판매는 예상치 전월대비 −0.2%보다 부진한 −0.9%를 기록했다<그림 24>. 연말 소비시즌 이후 1월 소비가 일반적으로 부진한 경우가 많다고 하나 예상을 큰 폭 하회하면서 향후 소비탄력에 점검이 필요해졌다.

지난 3분기 평균대비 여가나 자동차 등 다수의 소비재 수요가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5>. 이는 2023년 지방소득세 감면을 전후해서 소비가 둔화되었던 것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의 균형재정을 감안하여 지난해 연말까지 소비여력을 충분히 소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당사는 미국의 소비탄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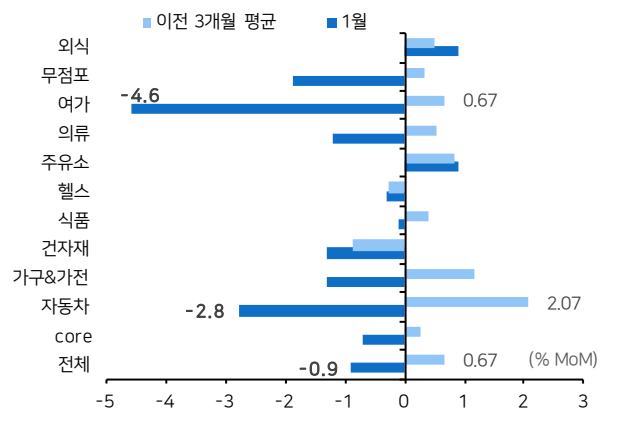
혹한이나 산불로 인한 소비 위축이었다면 무점포 소비감소가 −2% 가까이 늘어난 부분과 맞지 않다. 게다가 작년 12월 가계 소비자신용 같은 빚이 급증한 점도 맞물린다<그림 26>. 우리는 2023년 이후 재정자극에 의해 과도하게 진행된 미국 소비가 올해 둔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형할인마트 주가와 백화점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과정에 투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그림 27>.

그림24 1월 소매판매 예상보다 부진, 연말 소비시즌 반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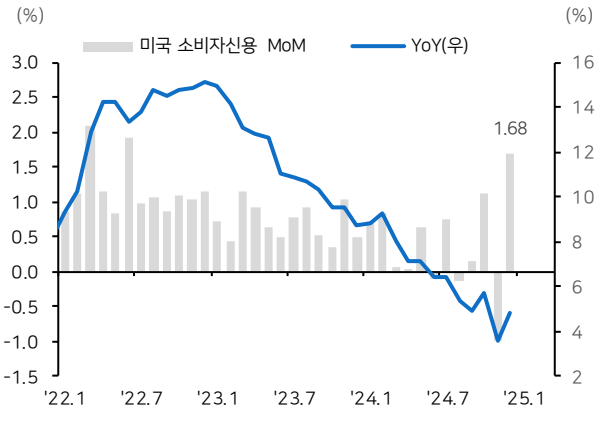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5 여가와 자동차 등 전반적 재화수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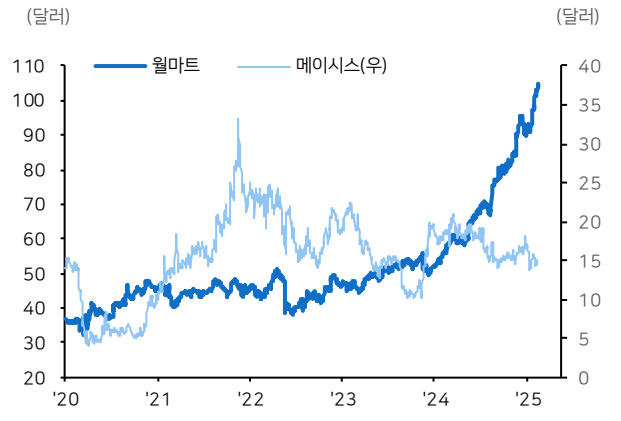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12월 빚까지 내가면서 강한 소비 견인의 여파



자료: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7 대형할인마트 주가상승 vs 백화점은 부진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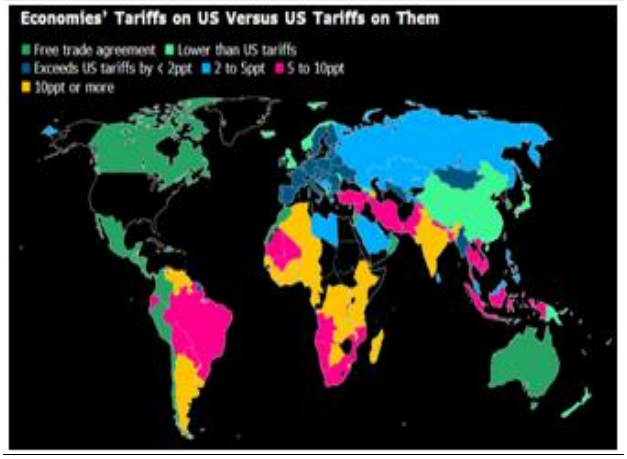
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 25% 관세 부과는 한 달 유예하면서, 중국은 10%를 부과하고 주요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시 관세전쟁을 우려하는 시각이 우세한 듯 보였으나, 트럼프는 계획한 13일 관세를 확정하지 않았다. 4월 1일까지 상무부의 연구를 통해 상호관세를 효과적으로 대입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그림 28>.

정책적 인플레이션 우려 덜어내며 연준의 통화정책 부담 감소

이는 균형재정과 함께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부담을 덜어줄 이슈로 판단한다. 미국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현실에서 무리한 관세적용은 인플레이션 공포만 더 높일 뿐이다. 보편관세가 아닌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다수의 FTA와 조세 협약국사이 균형점을 찾아간다면, 정책적 인플레이션 우려는 덜어낼 수 있다.

미국 선도금리에 반영된 금리인하 기대는 향후 1년 이내 50bp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 미국채2년 금리는 4.2%대 머물고 있다<그림 29>. 1월 FOMC 당시보다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는 일부 후퇴했으나, 고용지표 확인 이후 CPI에 후퇴한 통화완화 기대는 소매판매와 관세부과 시점 이연으로 소폭 개선되었다<그림 31>.

그림28 미국과 주요국 관세 부과 현황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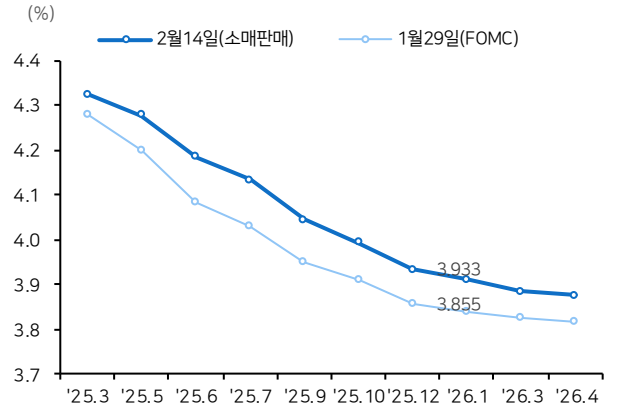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Economics

그림29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기대는 1~2차례 제자리 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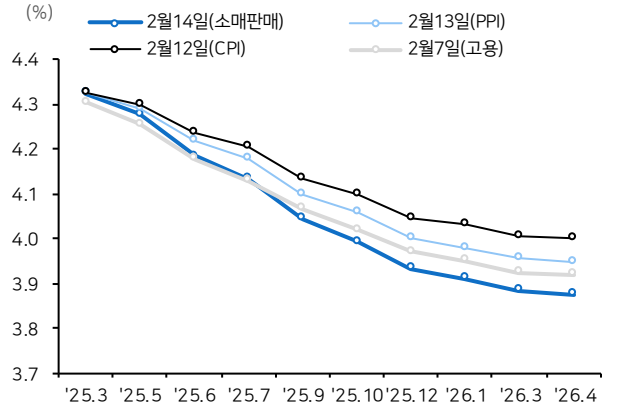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0 1월 FOMC 당시보다 통화정책 기대 다소 후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1 그럼에도 2월 중 CPI 확인 후 후퇴했던 기대 되돌림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당사는 올해 연준 3차례 75bp 인하 전망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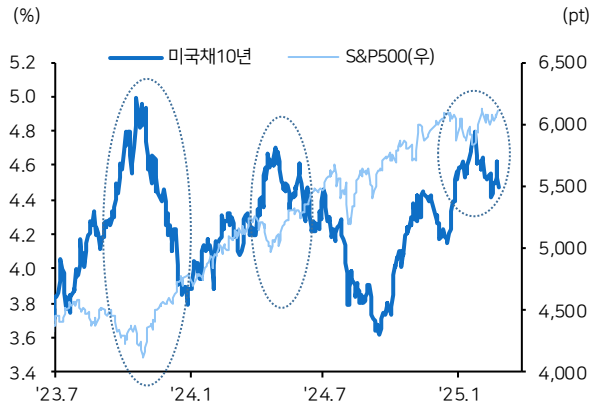
지금은 미국 금리인하가 1차례 혹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이들의 의견에 귀가 기울어질 수 있다. 작년 6월 FOMC '올해 1번 인하 밖에 없다'고 했던 연준의 점도표가 무색하게 결국 100bp 금리인하가 단행되었다. 우리는 트럼프가 정부지출을 줄이면서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관세관련 인플레 우려만 자극하지 않는다면, 올해 연준은 3차례 75bp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해 갈 것이다.

미국채10년 금리가 4% 중반에 붙잡혀 있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미국증시는 올해 신고가를 확인했다고 하나 상승 기울기가 완만해졌다<그림 32>. 트럼프 리스크 우려를 덜어내고 최근 경기모멘텀이 다소 둔화되는 경로에 진입하면서 달러는 레벨을 낮추고 있다<그림 33>.

1분기 중 미국채10년 4.3% 하단 테스트 유효하다는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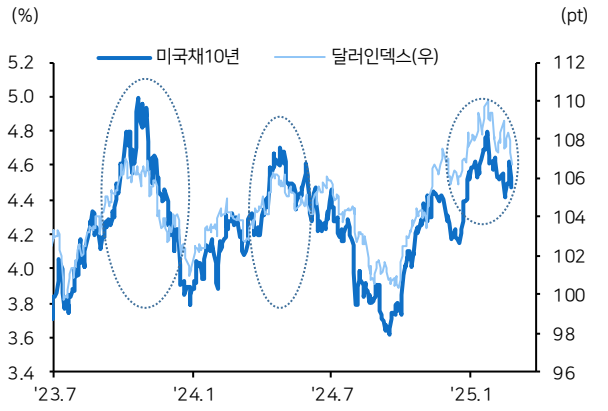
미국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도 오히려 미국채 변동성 지표와 유동성(호가갭) 관련 지표는 개선되는 흐름이다<그림 34>. 2분기 QRA 발표 이후 미국 정부의 재정신뢰성은 소폭 개선되었다. 우리는 당장 쉽지 않아 보이지만, 1분기 중 미국채10년 4.3% 하단을 테스트하는 과정은 유효하다고 본다.

그림32 미국채10년 4% 중반 미국 주식시장 횡보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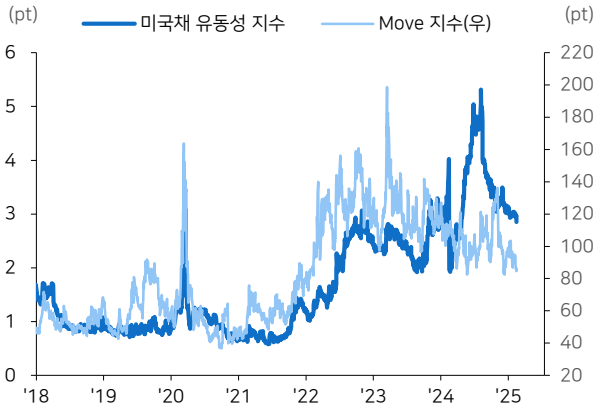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3 금리안정되면 달러 강세도 당연히 진정될 것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4 고금리에도 변동성과 미국채 유동성 소폭 개선 중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5 미국채10년 4.3%가 1분기 중요한 하단 테스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금리 아직은 통화정책 기대 우위 구간

미국과 달리 한국금리 레벨은 연초보다 높아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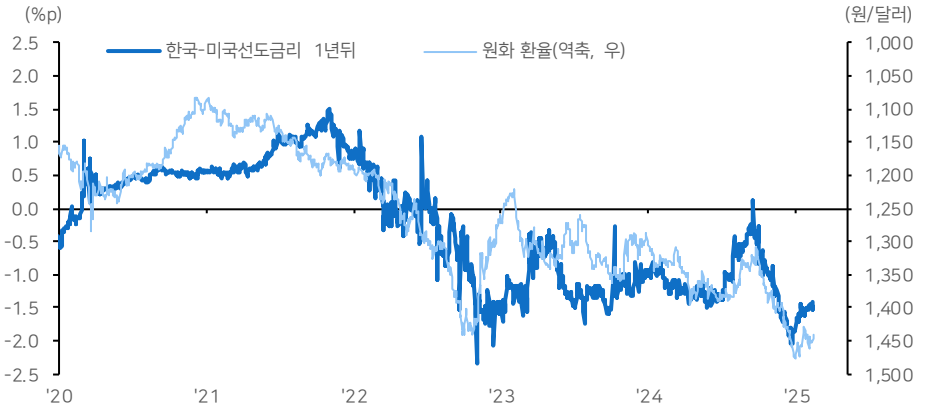
지난해 미국금리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잘 버텨온 한국금리가 올해 들어와서 미국금리가 소폭이나마 하락하는 과정에서 레벨을 높였다. 우리는 경기둔화와 통화완화 기대가 미국보다 앞서가면서 국채금리가 안정되는 역사적 한미 금리 디커플링을 진행했다. 이제는 그 디커플링의 역으로 균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장 미국과 한국의 향후 1년내 금리인하 기대는 50bp 내외로 유사하다. 이는 곧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150bp 정도 이를 기반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정도까지 안정될 수 있는 룸을 만들었다<그림 36>. 2월에 한국이 금리인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환율만 안정되면,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본다.

2월 이후 인하 시점, 2분기 확신 있어야 국고10년 현수준 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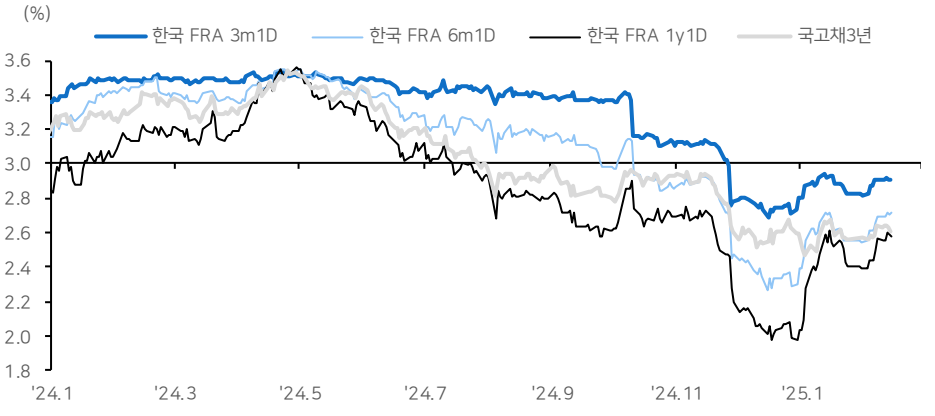
당사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컨센서스상 올해 기준금리 2.25%는 현재 선도금리보다 낮은 전망이다. 적어도 2월 국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다음 인하 시점이 2분기라는 확신이 있어야 추경실시 이후에도 국고10년 금리가 현재처럼 2.9% 내외를 지켜갈 수 있다. 우리는 '의심의 2분기'를 경계하고 있다.

그림36 미국과 한국의 통화완화 기대치 150bp 내외로 축소, 환율 추가안정 가능성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7 1년후 한국 기준금리 2.5% 가능성 높아짐에 따라 2분기 잘 넘겨야 할 것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아직 국고10년 2.9%에서는 대기 매수세 유입되는 상황

지난 주말 미국금리가 하락했고, 지난 주에도 국고10년 2.9%에서는 아직 추경 시점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그렇지만 역으로 국고10년이 2.7%대에서 안정될 정도의 매수가 강한 상황도 아니다. 현재 보험사 현물 수요 및 외국계 본드포워드 용 30년 매수가 강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공사채와 여전채 스프레드까지 채권투자 매력도가 많이 감소한 상황이다.

2월 금통위, 만장일치 인하 등 비둘기파적 회의 기대하기엔 무리

2월 금통위 금리인하 단행까지 시장의 '밀림 사자'는 비교적 강하게 유입되겠으나, 금리인하 이후가 문제다. 이번이 만장일치 인하라고 '비둘기적 회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연준이 인하할 것이라는 6월까지 우리만 2번 먼저 금리를 낮추는 것을 경계하는 금통위원이 존재할 공산이 크다.

주간 이벤트 및 평가(2월 17일 주간)

- 주요 지표 휴지기인 월 후반, FOMC 의사록 정도가 관심이나 파월의장 의회 보고 등을 통해 연준의 통화정책 신중론은 충분히 확인되어 영향 제한적일 것

표1 금주 이벤트 프리뷰

일자	국가	이벤트	중요도	이전치	코멘트
2월 17일	미국	대통령의 날	—	—	휴장일
2월 17일	일본	4분기 GDP 성장률 발표	★★★	0.2% QoQ	일본 내 임금-물가 선순환 구조가 성장 모멘텀 활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
2월 18일	독일	2월 ZEW경제심리지수	★	10.3	독일 펀더멘탈 부진 해결책 부재해 심리여건 위축 이어질 것으로 예상
2월 18일	호주	RBA 금리발표	★★★	4.35%	호주 물가 둔화 및 대외 여건 악화에 인하 시작 단서 줄 수 있을지 기대
2월 20일	미국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	—	대표적인 비둘기파 연준 위원으로 디스인플레이션 관련 발언 나올지 관심
2월 20일	미국	1월 FOMC 회의록	★★	—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양호한 경기 여건에 금리인하 신중해야 한다는 연준 인사들의 생각 재확인할 것
2월 20일	한국	2월 소비자 신뢰지수	★★	91.2	한국 고용환경 위축 등으로 국내 소비자 심리여건 회복 제한적일 전망
2월 21일	미국	2월 S&P제조업지수/ S&P서비스업지수(속보치)	★★	51.2/52.9	제조업황 개선 및 서비스업황 둔화 확인할 필요
2월 21일	일본	1월 헤드라인 CPI 발표	★★	0.6% MoM	일본 재화 물가압력에 더해 서비스 물가압력도 부상할 지 점검
2월 22일	미국	1월 기존주택 판매 MoM	★	2.2% MoM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영향으로 주택판매 판매량 줄어드는 것이 시장 컨센서스 (블룸버그 기준 -2.1% MoM)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